

데스크 시각



송기동 사회2부장

지난해 8월, 담양군 고서면에 위치한 명옥헌 원림(鳴玉軒 苑林)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마침 배롱나무꽃이 만개한 때라 붉은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절경을 연출했다. 명옥헌 앞 연못 역시 붉은 빛깔이 반영돼 아름다웠다. 수면에 는 소금쟁이때가 바람결에 움직이는 낙화헌 꽃잎을 따라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있었다. 이때 연못가 풀줄기에 뭔가 붙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그마한 잠자리 한 쌍이 하트모양을 한 채 짝짓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손가락 두 마디도 채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다. 마을 입구 담방에도 많은 생물체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잠자리 같기도

‘자연의 콩팥’ 습지생태계 안녕한가?

하고, 나비 같기도 한 모양새에 너울너울 ‘묘하게’ 나는 것도 있었다. 두 쌍의 날개가 대칭형이 아니고 아래쪽 날개가 더 큰 데다가 먹물을 묻힌 듯 검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잠자리 이름이 너무 궁금해 ‘한국의 잠자리’라는 제목의 도감을 구입해 살펴보니 전자는 ‘아시아잠자리’, 후자는 ‘나비잠자리’였다.

람사르 협약 이행 의무화

한여름철 명옥헌 일대는 피서객들에게는 ‘힐링’ 휴식지이지만 곤충 등 많은 생명체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던 것이다. 요즘 습지(濕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지도, 호수도 아닌 습지는 지구 표면의 6%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습지가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자연공간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등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습지가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생명이 모여 사는 또 하나의 생태계이자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콩팥’이기 때문이다. 1975년 발효된 ‘람사르(Ramsar) 협약’

은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순천만·보성갯벌을 비롯해 신안 증도갯벌, 무안갯벌, 신안 장도습지, 고흥 운곡습지, 고흥·부안갯벌 등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많이 찾는 곳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는 순천만일 것이다. 20여 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웅산전망대서 바라본 저녁 늦은 S자 물결이 인상적이었다. 보행데크가 놓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주먹대장’같이 한쪽 집게발이 유독 커다란 농개가 발밑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눈길 준 순천 ‘습지의 날’ 행사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습지는 개발 명목으로 매립되고 있다. 미국은 습지의 54%가 개발돼 없어지고, 뉴질랜드는 90%나 개발됐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역시 국토개발과 간척지 사업을 통해 시화호, 새만금 등지의 갯벌을 매립, 심각하게 파괴되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네덜란드는 독을 허물어 간척 농경지를 다시 습지로 되돌리고, 스위스도 직선화한 하천을 구불구불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09년 진도 소포리 일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역(逆)간척을 추진했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7일은 ‘제13회 세계 습지의 날’이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한국의 갯벌과 세계의 갯벌’을 주제로 한 생태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생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대강 사업 이후 ‘큰빛이끼벌레’가 번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환경오염과 개발행위로부터 습지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짬 내 가까운 곡성 반구정 습지나 담양 하천습지 등지를 찾아 잠자리와 여러 생물들을 찾아 보아겠다. /song@kwangju.co.kr

社說

감사원이 확인한 세월호 총체적 부실 대응

감사원이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참담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 모두 버리사슬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에 희생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중한 생명을 한 대 채보하는 대응역량 부족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점이다. 첫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의 해경 소관이라며 21분을 흘러보낸 뒤에야 소행행기를 출동시켰고, 진도 해상관제센터(TTS)는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사고상황을 구조본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해경본청은 세월호 좌현이 완전히 침수됐는데도 안이하게 판단해 화를 키웠으며,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역량 부족 등으로 상황을 왜곡 전파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 세월호는 인천항만청·한국선급·해경

등 관계기관이 선사와 한통속이 돼 불법 인가한 게 참사를 불렀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간 각계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기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두어 공직 개혁과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정부는 대령참사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법과 제도 개선,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어도 사고 원인은 형식 인제(人災)였다. 따라서 국가 개조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검은 유착의 시스템 개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최악의 소음’ 광주군공항 조속히 이전하라

광주공항 주변 소음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공기 소음 측정에서 전국 15개 공항 중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공항의 소음은 다른 민간 전용 공항에 비해서도 유독 심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항공기 소음 측정망 운영 결과’에 따르면 광주·김포·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 주변 104개 지점의 소음 측정 결과,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는 87웨벨(WCEP-NL·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기 운항 횟수가 25배 이상 많은 인천국제공항의 62웨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광주공항은 특히 7개 지점의 측정망 모두 항공기 소음 한도(75웨벨)를 뛰어넘는 79~93웨벨을 기록했다. 송대동에 설치된 측정망의 경우 평균 소음이 93웨벨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공항이 항공기 소음도에서 전국 최고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87웨벨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광주공항의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민간 전용 공항에 비해서도 유독 심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음을 내는 초음속 훈련기를 다수 보유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공항 인근 5만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 1964년 군공항 창설 이래 50년 동안 ‘집단 노이로제’ 등 전투기 굉음에 시달려 왔다. 다행히 지난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을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와 광주시는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대체부지 모두 항공기 소음 한도(75웨벨)를 뛰어넘는 79~93웨벨을 기록했다. 송대동에 설치된 측정망의 경우 평균 소음이 93웨벨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나타났다.

은편칼럼

군수가 되신 K형에게

시길 권해드립니다. 시대와 제도는 바뀌어도 백성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마음과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의는 예상보다 엄정하고 무서웠습니다. 광주·전남에서 3선연임의 도전은 7명중 겨우 3명만이 성공했으며, 단체장이 물갈이 된 지역은 시정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 2곳과 기초단체 14곳(광주 1, 전남 13)으로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3선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여 새롭게 바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민심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보다 오래 지지받는 군수가 되려면, 먼저 선거에 임한 때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매사에 자신을 낮추면서 주민의 뜻을 섬기는 민본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선거 때는 표를 구걸하며 굽실거리다가 일단 당선된 후엔 초심은 오고나고 권위와 독선으로 흐르는 안하무인의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민의의 표출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항상 소통하도록 하십시오. 견제와 비판, 조정요구 등을 간섭한다고 노여워하거나 탓

지 말고,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나가십시오. 민심은 물과 같아서 군수가 잘 할 때 모여 들지만 잘 못할 때 언제고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이해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과오를 고쳐 나가십시오. 요즘 국정 운영을 두고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는 말이 화두인데,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가 모든 일을 혼자 다하겠다고 나선다면 군정은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수로서 모든 업무는 치밀하게 파악하고 장악해야 하겠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간부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단체장은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야간 부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료를 보장하십시오. 틀림없이 역동적이며 건강한 군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人事)와 재정(財政)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단체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은 가장 큰 권한이며 중요한 업무지만 자칫 전횡으로 이어질 땐 자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와 공사에 있어서는 청렴을 원칙으로 하고,

처음 단행하는 인사부터 능력중심의 탕평 인사로 직원들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임차(금품)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실 단체장들이 임지만 멀리해도 선거권 위반의 원죄가 없는 한, 정도에 그만 두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십시오. 올해 전라남도도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불과 17.4%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5곳이나 됩니다. 군수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자체수입을 제고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선심성사업과 예산낭비 사례를 제거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군정을 살찌우고 결국 지방자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민관의 ‘성공의 요제’는 청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군수로서 지방행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군수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K형의 건승을 빕니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원칙보다 우선되는 뿌리깊은 특혜부터 단절해야



김세헌 광주경실련 정책부장

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 속 만연된 특혜와 예외에 대해 사회 구성원조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 일례가 한국축구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사회전반에 팽배한 특혜의 문제, 나아가 항상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일부 특권층에 대한 원칙의 예외와 특정한 배려가 축구에서조차 표출된 것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이다. 실상, 금번 월드컵에 현 대표팀 감독은 원칙을 중시하는 ‘원탑’을 주장하였고, 그 신념을 통해 많은 축구팬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월드컵이 직면한 순간, 실력보다도 인맥을 선호했고 경력보다는 의리를 중요시 했다. 이는 축구팬들에 대한 기망이자, 대표의 직책 값이 존재하는 ‘사명감’과 ‘책임권한’의 남용이자, 월권과도 같은 행위였다. 특히, 소통이 중요한 요즘 추세를 역행한 ‘불통’의 자세는 현 정치 구조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축구 역시, 한국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공정함을 전제 한 경쟁 즉, 탐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일부 특권층에 대한 배려와 예외가 원칙보다 우선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특혜와 예외에 대한 이중적인 자세 속에서도 내재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실상,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대표되는 특혜와 예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 속에 팽배한 특혜와 예외 그리고 피해의식은 사회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뿐이다. 또한 사회는 원칙과 예외의 ‘주객전도’에 의한 혼란과 갈등이 지금보다 더 표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갈등은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개별적이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항상 미국을 비난해왔다. 강대국이 가지는 월포와 자국의 이득에 대한 표독스러운 정도의 행태에 대해 말이다.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사회가 가지는 ‘원칙의 고수와 특혜와 예외의 단절’이다. 실제로 미국 사회 속에서 특혜와 예외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명목 하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의 형태로 존재하며, 특권층의 헌신과

특혜 등의 사회적 배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을 통제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존재가 원칙의 준수와 특혜와 예외의 근절로부터 존재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사회는 또 한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한 특혜와 예외를 묵과하고 잠재적 해택 계층일지도 모르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이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피해 대상이 나와 나의 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는 내게 돌아올지 모르는 특혜보다 내게 가해질 특혜에 따른 피해가 더욱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월드컵은 4년 뒤에 또 개최된다. 물론 한국 사회 역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자발적인 원칙 고수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자아 통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다른 긍정적일 결과를 낳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 가지는 힘이자, 것이다.

無等鼓

이러한 권력자들이 일반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미국에서 발표된 ‘황단보도 테스트’도 대표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다. 캘리포니아대학교 폴 피프 박사가 수행한 이 실험은 복잡한 사거리에서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한 것인데, 결과가 자못 흥미롭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달려오던 승용차가 제때 멈춰서느냐를 관찰한 이 실험에서는, 값비싼 고급 승용차일수록 고차로서 차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시간대나 교통량과 상관없이 없었으며, 고급차를 모는 남녀 운전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무려 절반 가량이 신호를 무시했으며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눈까지 마주쳤으면서도 먼저 지나치려고 속력을 더 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 운전자들은 비교적 정직한 행태를 보였다. ‘고급차를 모는 사람일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념

을 받아들인다면, 있는 사람일수록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 경향에 대해 ‘남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재산과 권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에 다른 사람과 얽힐 가능성도 작고,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동정심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이 남을 덜 배려하거나 무시하도록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와 권력에 취한 이들이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리나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최상층부에 포진한 고급 인력들이 ‘명예로운’ 총리직 제안마저 고사해야 할 정도로 ‘뒤가 구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공인이 되어 국민 앞에 뜻이 나서지 못하는 것, 이웃과 공동체 보다는 돈과 권력에 몰두한 대가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대가(代價)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